

산간지대 농가의 부엌공간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Variations of Kitchen Spaces in Mountain-areas.

유 옥 순*
Ryou Ok soon

Abstract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changes seen in rural kitchen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modernization of agrarian kitchen space in mountain areas, and to compare them with those in the plain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The kitchen space in mountain areas remained in the state of a combined style(depicting both western and traditional styles), while the kitchen space in the plains after the 1980s showed a tendency toward the western style. Generally speaking, the physical state of kitchens in mountain farmhouses, therefore, was at a low level in comparison with that of the plains.

2) The kitchen improvement projects of Sae-Ma-Eul Movement fostered a trend toward the western and combined style kitchens in the plains, but it did exert a little influence only on a part of the four mountain areas, and it resulted in a combination of both styles.

3) Among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under consideration, only the level of education achieved by the wife was found to be a determinant factor of the kitchen type in the mountain areas, but the level of education achieved by the husband and the family life cycle were two determinant factors in the plains. Under the category of family life style, the factors affecting the kitchen type in the mountain areas were cooking-heating fuel and the position of the refrigerator, while the main factors in plains were the place and the method of eating, cooking-heating fuel, the position of refrigerator, and numbers of family-memorials.

*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산업화와 경제발전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서구문물이 유입됨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모에 영향을 받아 주택공간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전통적 주택의 취약점으로 흔히 지적되어 왔던 부엌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농촌부엌은 도시부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수준이 낮아 여러가지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농촌의 평야지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볼 때(유 옥순, 1988) 농촌의 부엌은 1970년대초를 기점으로 일어난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시설면, 재료면, 구조면에서 도시의 부엌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어 비위생적, 비능률적인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부엌에서 일하는 농가 주부들은 가사노동 외에 농업노동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 농가주부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으로 계속하여 농업노동이 노령화, 부녀자화될 전망에 따라 주부의 농업 노동시간이 증가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가사 노동시간의 감소를 위해서는 능률적인 부엌개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농가부엌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부엌개량에 대한 요구의 증가에 따라 부엌공간에 대한 논문들이 몇편 나오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농촌의 주택공간 전체를 분석하면서 그 일부로 부엌의 실태 및 변화를 다룬 것(최 찬환 1986, 강 영환 1987, 박 경옥 1987, 이 동락 1987, 이 원 1987, 한 필원 1987, 박 성준 1988, 김 성우·윤 정숙 1988, 1989, 박 경란 1989, 장 덕찬 1989)이며, 최근에 이르러서야 농촌의 부엌공간만을 세부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한 논문이 나오고 있다(최 병숙 1988, 유 옥순 1988, 이 은경 1989, 지 순 외 5인 1990,

정 문영 1992). 이들은 부엌의 유형을 분류하고, 부엌의 변화상태 및 개량방향을 분석하고, 부엌공간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들 조차도 이들은 주로 평야지대의 농가주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농촌을 지역별로 분류해 볼 때 산간지역은 경제상태, 도로포장률, 새마을 사업에 투입된 비용(전북일보사, 1991)이 평야지역과는 상이해서 부엌의 상태도 평야지역과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간지대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기초로 하여 통계적 검증에 의한 종합적 접근방법으로 변화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거주인의 요구에 맞는 부엌공간 계획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나아가 농촌 평야지대의 부엌과 비교분석하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을 둔다.

2. 연구목적

이러한 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부엌공간의 변화내용과 시기를 조사하여 변화 과정을 파악하고 특성별로 부엌을 유형화한다.

2) 부엌공간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다.

위의 연구목적에 따라 부엌공간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부엌유형에 영향을 줄 것인가?

<연구문제 2> 식생활양식 특성은 부엌유형에 영향을 줄 것인가?

3. 연구의 한계점

- 1)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지역이 전북지역에만 한정되었다.
- 2) 본 연구에서 평야지대는 1987년, 산간지대는 1990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했기 때문에 비교 시점에 차이가 있다.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였다. 실증적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사용하였던 정량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이 갖고 있는 장점을 수용하면서도 여러가지 단점들 (김 경동 이 은숙, 1988)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주택을 실측하고, 관찰하며, 비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대상 주택의 주부를 심층 면접조사하는 질적 연구방법도 병용하였다.

2. 예비조사

조사시기는 1987년 7월 15일-1987년 8월 22일까지였고 조사대상은 전라북도 평야지대의 4개군의 42주택과 그 주택에 거주하는 주부였다.

이 예비조사를 위한 설문내용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 주택의 물리적 특성, 부엌공간의 물리적 특성, 식생활양식 특성 그리고 부엌의 개조행위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본조사

예비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본조사의 설문 구성과 그 내용, 설문지의 타당도, 조사 대상지역, 자료수집방법 및 조사기간, 자료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지역

조사대상 지역은 전라북도 산간지대의 농가로 한정하여, 13개군 중 산간지대에 해당하는 4개군이다. 즉, 무주군에서 14호, 진안군에서 15호, 장수군에서 15호, 순창군에서 16호로 총 60주택을 조사하였다.

2) 설문구성과 내용

예비조사 결과,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본조사에서는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재 배치하고, 미비한 점을 수정·보완하였다. 최종으로 완성된 설문지는 주택의 물리적 특성, 부엌공간의 물리적 특성, 식생활양식 특성, 부엌의 개조행위,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내용에 대한 타당도는 본 연구영역 전공교수 5인에 의해 검토되었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조사기간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부엌의 현재상태를 촬영하고, 관찰하고, 실측하여 스케치하고, 주부와 면담하여 설문지를 조사하였으며 그 기간은 1990년 12월 20일에서 1991년 1월 13일까지 25일간 이었다.

4) 자료처리

총 60부의 설문지를 조사하여 본조사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를 위한 분석방법은 단순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C^2 이 사용되었다

III. 조사결과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엌공간의 변화시기와 내용을 파악하여 부엌을 유형화하고, 각 부엌 유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부엌공간의 변화내용과, 부엌유형의 변화요인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를 평야지대의 것과 비교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성격

본 조사 결과로 나타난 조사대상가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주택의 물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1)(표2).

(표1)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구성분포

(N = 60)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포	f	%	사회인구학적 특성		분포	f	%
남자 연령	① 30-34세		1	1.7	여자 연령	① 30-34세	2	3.3	
	② 35-39세		1	1.7		② 35-39세	9	15.0	
	③ 40-44세		8	13.3		③ 40-44세	5	8.3	
	④ 45-49세		7	11.7		④ 45-49세	15	25.0	
	⑤ 50-54세		14	23.3		⑤ 50-54세	8	13.4	
	⑥ 55-59세		9	15.0		⑥ 55-59세	15	25.0	
	⑦ 60세 이상		14	23.3		⑦ 60세 이상	6	10.0	
계			54*	90.0	계		60	100.0	
자녀학력	① 무학		19	31.7	자녀학력	① 무학	36	60.0	
	② 국공중고		27	45.0		② 국공중고	23	38.3	
	③ 중졸		5	8.3		③ 중졸	0	0.0	
	④ 고졸		3	5.0		④ 고졸	1	1.7	
계			54*	90.0	계		60	100.0	
가족형태	① 핵가족		35	58.3	가족수	① 20만원 이하	22	36.7	
	② 확대가족		25	41.7		② 21-30만원	18	30.0	
계			60	100.0		③ 31-40만원	8	13.3	
가족성별구성	① 가정형성기		2	3.3		④ 41-50만원	9	15.0	
	② 확대중기		1	1.7		⑤ 51만원 이상	3	5.0	
	③ 확대말기		7	11.7	계		60	100.0	
	④ 확대초기		2	3.3	① 3인 이하	31	51.6		
	⑤ 축소		48	80.0	② 4-5	15	25.0		
계			60	100.0	③ 6-7	13	21.7		
					④ 8인 이상	1	1.7		
					계		60	100.0	

* 남편이 없는 경우가 6세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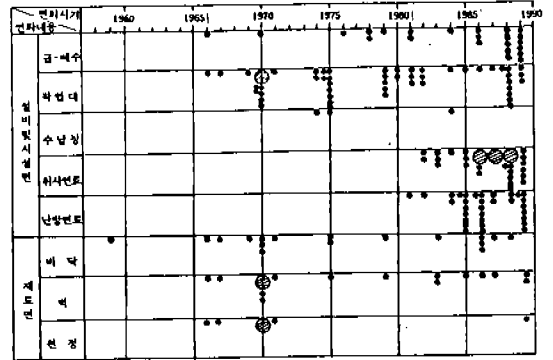
(표2) 주택의 물리적 특성의 구성분포

(N = 60)

구성		분포	f	%	구성		분포	f	%
건축연도	① 1976년 이전		60	100.0	부엌크기	① 2평미만	1	1.7	
	계		60	100.0		② 2-3평미만	15	25.0	
주택유형	① 재래식 주택		60	100.0		③ 3-4평미만	35	58.3	
	계		60	100.0		④ 4-5평미만	9	15.0	
주택크기	① 15평미만		16	26.7	주거기간	① 5년내	2	3.3	
	② 15-20평미만		8	13.3		② 6-10년	5	8.3	
	③ 20-25평미만		15	25.0		③ 11-15년	9	15.0	
	④ 25-30평미만		10	16.7		④ 16-20년	6	10.0	
	⑤ 30-35평미만		8	13.3		⑤ 21-25년	9	15.0	
	⑥ 35평 이상		3	5.0		⑥ 26-30년	11	18.2	
	계		60	100.0		⑦ 31년 이상	18	30.2	
					계		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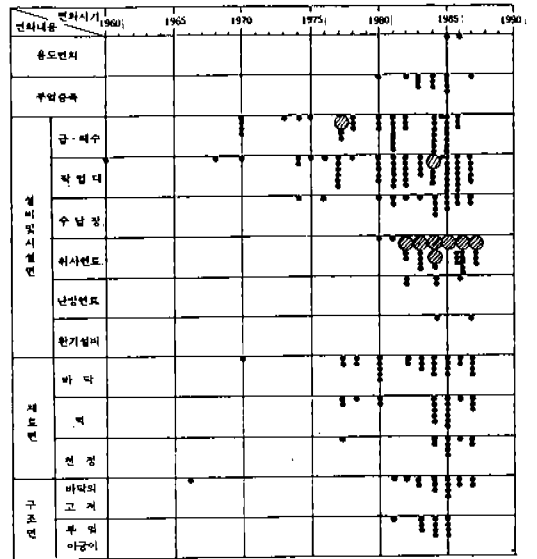
2. 부엌공간의 변화

1) 부엌공간의 물리적 측면의 변화내용과 시기



<도표 1> 부엌공간의 변화내용과 변화시기

<도표1>에서와 같이 조사주택 60호의 부엌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부엌공간의 변경은 설비 및 시설변경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재료의 변경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설비 및 시설변경과 재료를 변경하고 구조면, 용도변경과 부엌크기까지 변경 한 평야지대<도표2>와는 상이해서 산간지대가 평야지대에 비해 부엌의 변경 폭이 좁은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2> 부엌공간의 변화내용과 변화시기(평야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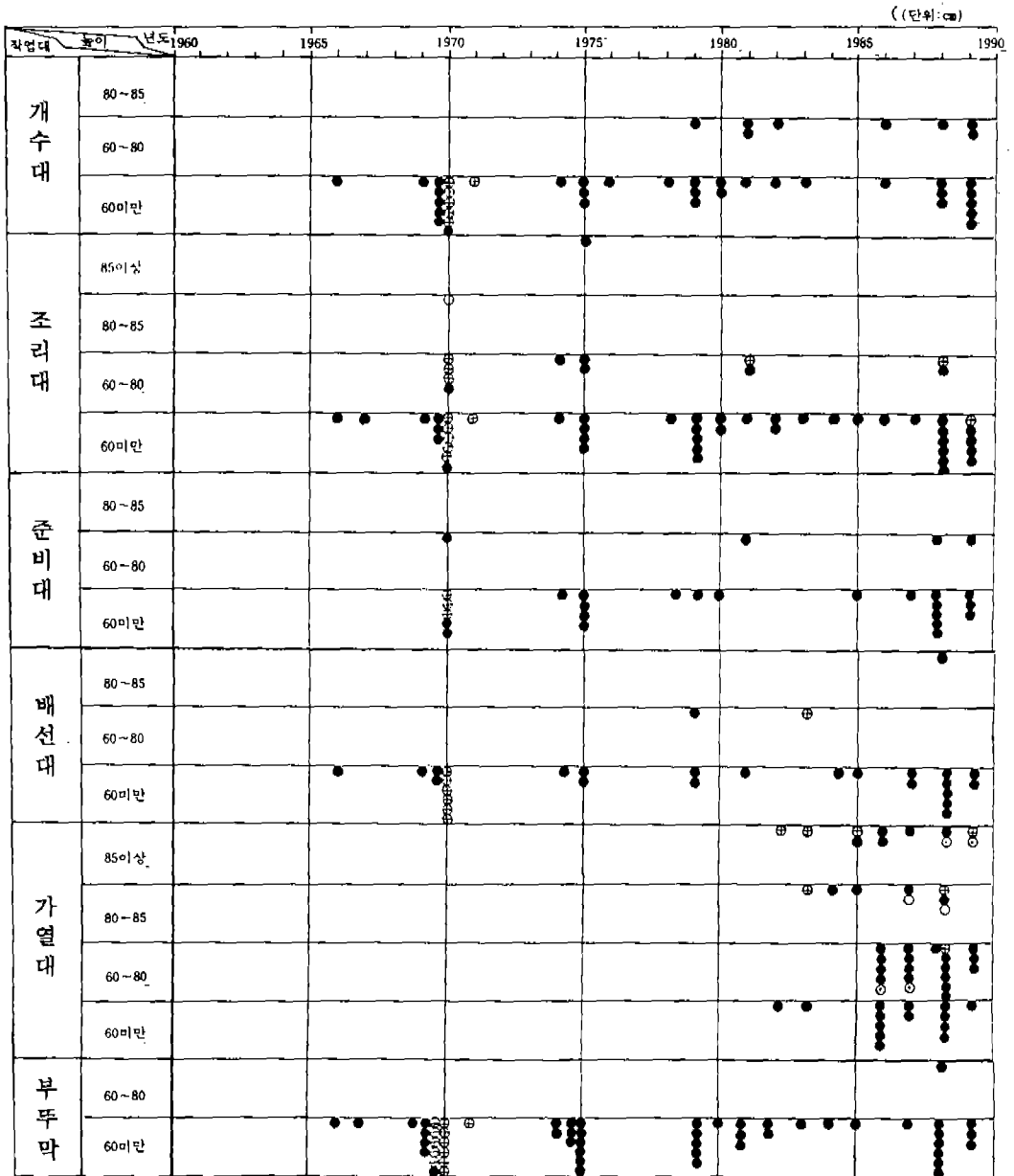
* 개념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부엌이 전체적으로 달라진 경우는 변화라 하고 부분적인 개조행위는 변경이라 한다.

변화시기는 평야지대의 경우 주로 1970년대 초에 시작하여 1977년 이후에 활성화된 것이 명확한 반면, 산간지대의 변화시기는 1970년에 변경사태가 많았고, 그 이후는 주로 작업대의 변경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고, 1985년 이후는 부

엌 변경사태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부엌공간의 설비 및 시설

산간지대의 부엌의 설비 및 시설면으로 보아



<도표 3> 작업대의 높이와 재료

○ 스테인레스+나무
● 시멘트
⊙ 타일
⊙ 나무

변경이 가장 많은 것은 작업대이고 이어 취사연료, 난방연료, 급배수설비, 수납장의 순서로 되어 있는 반면<도표1>, 평야지대는 작업대, 급배수설비, 취사연료, 수납장의 순으로 변경순위에 있어 산간지대와 상이함을 보여주었다<도표2>. 두지역 모두 작업대의 변경이 가장 많았다. 작업대는 개수대, 조리대, 준비대, 가열대, 배선대로 구분되는 데 그 중 조리대의 변경 사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가열대, 개수대, 배선대, 준비대 순서로 나타났다<도표3>. 평야지대의 것과 비교해 볼 때 산간지대는 조리대가 가장 많이 변경되었지만, 평야지대는 개수대가 가장 많이 변경되어 조리대와 개수대의 변경순위가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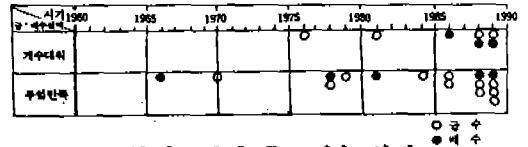
작업대의 변경이 활성화된 시기는 1970년 이후이다<도표3>. 작업대의 재료는 1987년과 1988년에 각 한집씩 가열대를 스테인레스와 나무로 된 공장제품을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70년대 이래 지금까지 시멘트, 타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높이는 가열대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60cm 미만이 대부분이며 몇 가구들은 최근에 이르러 60-80cm로 변경이 되고 있다. 이것은 1970년대는 시멘트, 타일, 나무에서 최근에 이클수록 스테인레스와 나무로 된, 그 높이는 60cm미만에서 60-80cm를 거쳐 80-85cm높이로 변경된 평야지대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산간지대의 부엌은 재료와 높이면에서 훨씬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 사례가 많은 것은 취사연료로 1982년부터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1986년 이후에 확대되었는데, 이것은 평야지대에 비해 시기적으로 약 4년 정도 늦은 것을 알 수 있다.

세번째로 변경된 난방연료는 1985년 이후 활성화되었는데 그 재료를 살펴보면 장작·나무의 사용에서 연탄으로 바뀌는 추세로 평야지대의 경우에 비해 변경 사례가 많았다. 그 이유는 조사시기가 산간지대의 경우 3년 뒤에 실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네번째로 변경된 것은 급배수설비인데 1966년에 부엌 한쪽에 배수구 설치할 기점으로 시작하여 1976년에는 개수대 위에 급수를 설치하는 등 간헐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나 <도표4>, 평야

지대가 1977년 이후 입식의 형태로 변경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변화속도가 늦은 것을 알 수 있다.



<도표4> 부엌공간의 급배수 설비 위치 변화

이와 같이 산간지대에서는 설비 및 시설 중에서 작업대와 취사연료가 가장 많이 변경되었고, 평야지대에선 작업대와 급배수설비가 가장 많이 변경되는 등 변경순위에 상이함을 보여주고 있어 지역간 거주자의 요구가 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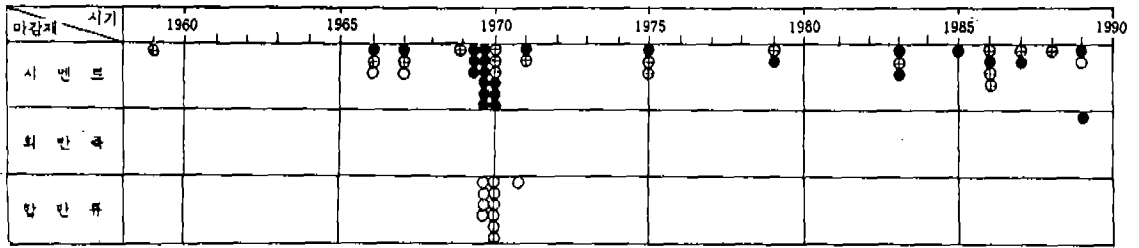
작업대의 변경내용에 있어서도 그 재료가 산간지대의 경우 시멘트, 타일이 주종을 이루고 그 높어도 60cm 미만이 대다수인 반면, 평야지대의 것은 시멘트, 타일에서 스테인레스로, 그 높이는 60cm 미만에서 60-80cm를 거쳐 80-85cm로 변경되며, 급배수설비의 경우 평야지대의 것은 입식의 형태로 변경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산간지대의 부엌이 설비 및 시설면에서 평야지대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엌공간의 마감재료

재료면에서 산간지대는 벽, 바닥, 천정의 순으로 변경되고 있는 반면<도표1>, 평야지대에서는 바닥, 벽, 천정의 순으로 변경되고 있어 변경순위에 상이함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변화시기와 관련지어 보면<도표5> 부엌벽의 마감재는 1966년부터 현재까지 흙에서 시멘트와 회반죽으로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부엌바닥의 마감재는 1959년부터 현재까지 시멘트로만 변경되었다.

부엌의 천정 마감재는 1966년부터 시멘트로의 변경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1970년에는 산간지대 4지역 중 한 지역에서 합판류로의 변경이 많았는데 이때 전개된 새마을 사업에 영향을



<도표 5> 부엌공간의 마감재의 변화

● 벽
○ 천정
⊙ 바닥

받아 변경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평야지대가 최근에 이물수목(1985년 전후) 바닥은 비닐타일류, 벽은 합판류 및 벽지, 천정은 합판류로 변경되는 등 점차 부엌의 설비가 공장제품으로 입식화되는 추세와 비교해 볼 때, 산간지대는 바닥, 벽의 재료면에서 아직도 재래식 또는 절충식 부엌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부엌공간의 구조

평야지대에서 부엌바닥을 최근에는 방높이와 동일하게 변경시키면서 부엌아궁이를 부엌옆의 부속공간인 제2의 부엌으로 옮기며 부엌을 입식화시킨 반면, 산간지대에서는 부엌바닥의 고저차를 없앤다든가 또는 부엌아궁이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부엌구조에 대한 변경 사례가

없었다.

이상에서 부엌공간의 물리적 변화내용 중 거주자의 변경행위가 많았던 것은 평야지대에서는 설비 및 시설면, 재료면, 구조면으로 그 시기는 1980년대 이후에 부엌공간이 점차 입식화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 반면, 산간지대의 경우는 변경이 설비 및 시설면, 재료면에서만 이루어졌으며 평야지대와 비교해 볼 때 모든면에서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구조면에서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엌에 계단이 있거나 굴곡이 있기 때문에 산간지대의 주부들이 평야지대의 주부들에 비해 부엌에서 매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부엌공간의 유형화

부엌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유형화 한 결과는

<표 3> 부엌공간의 물리적 측면에 따른 유형화

물리적 요소	설비 및 시설면						재료면			구조면	
	급·배수설비	작업대	수납장	취사용업도	난방용업도	환기설비	바닥	벽	천정	부엌아궁이 바닥의 고저	부엌아궁이 유무
절충형	· 부엌안 개수대위에 급·배수 설비가 하나만 혹은 모두 설치된 경우와 부엌 한쪽에 급·배수 설비가 됨	· 조리대, 개수대, 가열대가 80~85cm 높이로 설치된 경우와 이중 1개 이상의 작업대가 80~85cm 높이로 설치됨 · 조리대, 개수대, 가열대가 60~80cm 높이로 설치됨	· 불박이 찬장 · 이동식 찬장 · 작업대 위나 아래에 설치된 장	· 가스 · 연탄 · 면탄 · 석유 · 나무 · 짚겨 · 짚겨	· 연탄 · 나무 · 짚겨	· 창문	· 시멘트	· 시멘트 · 회반죽	· 목재 (합판) · 시멘트 · 회반죽 · 흙	· 있다	· 있다
제대형	· 부엌 한쪽에 급수와 배수설비가 되어 있는 경우와 부엌안에 급·배수 설비가 되어 있지 않음	· 조리대, 개수대의 작업대가 재래식 부뚜막 높이로 (35~60cm) 설치됨 · 부뚜막과 한쪽에 개수대를 제외한 1개 이상의 작업대가 허리높이로 설치됨	· 선반, 서랍을 포함한 이동식 찬장이나 불박이 찬장	· 나무 · 짚겨	· 나무 · 짚겨	· 살창 (증창) · 문	· 흙	· 흙	· 흙	· 있다	· 있다

다음과 같다.

부엌공간의 물리적 측면 즉, 설비 및 시설면, 재료면, 구조면, 3가지를 기준으로 60가구의 부엌에 대해 해당항목을 점검하여 부엌유형을 분류하였다.

이와같은 분류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부엌의 유형은 재래형이 38가구(63.3%), 절충형 22가구(36.7%)로 나타났다(표 3). 평야지대에서는 입식형 부엌이 32가구(26.7%)로 나타났으나, 산간지대는 입식형은 한 사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산간지대의 부엌은 재래형과 절충형으로 유형화 되었다.

3. 부엌공간 유형에 영향을 미친 요인

1) 정책적 측면

평야지대의 경우 전반적인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한 주택개량은 1978년 표준형 평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때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읍자 등을 통한 정부주도의 주택개량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부엌유형을 절충형(1978년) 및 입식형(1980년)으로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산간지대의 경우는 4지역 중 한 지역만이 1970년에 정부주도하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부뚜막과 작업대를 단지 시멘트나 타일로 재료만을 변경하는 정도였으므로 평야지대의 변경사례와 비교하면, 산간지대의 부엌공간 유형에는 정책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부엌유형에 영향을 주는 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 1을 교차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부엌유형에 영향을 줄 것인가?

본 연구에서 검증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부부의 연령과 학력, 가족유형, 가족생활주기, 가족수, 소득이었다.

연구문제를 살펴보기위해서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부엌유형은 여자학력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자의 학력, 부부의 연령, 가족유형, 가족수, 소득, 가족생활주기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득이 부엌유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무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요인 보다는 교육에 연유한 의식구조, 지적수준이 부엌공간 유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엌유형과의 교차분석

사회인구학적 특성	부엌 유형	재래형		절충형		계		X ²	C ²
		f	%	f	%	f	%		
남자 연령	①30 - 34세	1	2.7	0	0.0	1	1.9	8.18 ^{N.S}	
	②35 - 39세	0	0.0	1	5.9	1	1.9		
	③40 - 44세	5	13.5	3	17.6	8	14.8		
	④45 - 49세	7	18.9	0	0.0	7	13.0		
	⑤50 - 54세	8	21.6	6	35.4	14	25.9		
	⑥55 - 59세	5	13.5	4	23.5	9	16.7		
	⑦60세 이상	11	29.8	3	17.6	14	25.8		
계	37	68.5	17	31.5	54	100.0			
여자 연령	①30 - 34세	1	2.6	1	4.5	2	3.3	3.73 ^{N.S}	
	②35 - 39세	6	15.8	3	13.6	9	15.0		
	③40 - 44세	3	7.9	2	9.1	5	8.3		
	④45 - 49세	9	23.7	6	27.3	15	25.0		
	⑤50 - 54세	6	15.8	2	9.1	8	13.4		
	⑥55 - 59세	11	28.9	4	18.2	15	25.0		
	⑦60세 이상	2	5.3	4	18.2	6	10.0		
계	38	63.3	22	36.7	60	100.0			
남자 학력	①무학	15	40.6	4	23.6	19	35.2	2.89 ^{N.S}	
	②국학	18	48.6	9	52.9	27	50.0		
	③중학	2	5.4	3	17.6	5	9.2		
	④고학	2	5.4	1	5.9	3	5.6		
계	37	68.5	17	31.5	54	100.0			
여자 학력	①무학	27(4.2)	71.1	9(-4.2)	40.9	36	60.0	6.59*	.31
	②국학	10(-4.6)	26.3	13(4.6)	59.1	23	38.3		
	③중학	0(0)	0.0	0(0)	0.0	0	0.0		
	④고학	1(0.4)	2.6	0(-0.4)	0.0	1	1.7		
계	38	63.3	22	36.7	60	100.0			
가족유형	①핵가족	23	60.5	12	54.5	35	58.3	0.03 ^{N.S}	
	②확대가족	15	39.5	10	45.5	25	41.7		
계	38	63.3	22	36.7	60	100.0			
가족생활주기	①가정형성기	2	5.3	0	0.0	2	3.3	4.17 ^{N.S}	
	②확대초기	1	2.6	0	0.0	1	1.7		
	③확대중기	3	7.9	4	18.2	7	11.7		
	④확대말기	2	5.3	0	0.0	2	3.3		
	⑤축소기	30	78.9	18	81.8	48	80.0		
계	38	63.3	22	36.7	60	100.0			
가족수	①3 이하	20	52.7	11	50.0	31	51.6	2.90 ^{N.S}	
	②4 - 5	11	28.9	4	18.2	15	25.0		
	③6 - 7	7	18.4	6	27.3	13	21.7		
	④8 이상	0	0.0	1	4.5	1	1.7		
계	38	63.3	22	36.7	60	100.0			
소득	①20만원이하	11	28.9	11	50.0	22	36.7	4.74 ^{N.S}	
	②21-30만원	14	36.8	4	18.2	18	30.0		
	③31-40만원	4	10.6	4	18.2	8	13.3		
	④41-50만원	7	18.4	2	9.1	9	15.0		
	⑤51만원이상	2	5.3	1	4.5	3	5.0		
계	38	63.3	22	36.7	60	100.0			

* .05 수준에서 유의적임.

N.S = Not Significant

() 관찰 빈도에서 기대 빈도를 뺀 수치임.

따라서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부분적으로 부업 유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부업유형은 여자학력에 따라 .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무학인 경우는 재래형 부업, 국졸인 경우는 절충형 부업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C²값은 .31로서 여자의 학력으로 부업유형은 31%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야지대의 조사에서는 남자의 학력과 가족생활주기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남자의 학력에서 무학인 경우는 재래형 부업, 국졸인 경우는 절충형, 고졸 이상의 경우는 입식형 부업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두지역 모두 성별이 다르긴 해도 학력이 높을수록 좀더 좋은 조건의 부업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식생활양식 특성

식생활양식 특성이 부업유형에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의 연구문제 2를 교차분석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2) 식생활양식 특성은 부업유형에 영향을 줄 것인가?

본 연구에서 검증한 식생활양식 특성으로는 식사장소와 방법, 취사, 난방연료, 가족행사의 횟수, 부업기기 소유수, 냉장고의 위치였다. 연구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교차분석한 결과는 (표5)와 같다.

부업유형은 취사연료(농한기, 농번기), 난방연료, 냉장고 위치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식사장소와 방법, 가족행사의 횟수, 부업기기 소유수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식생활양식 특성은 부분적으로 부업유형에 영향을 끼친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취사연료(농한기, 농번기)의 경우 재래형 부업은 장작 나무를 사용하고, 절충형 부업은 가스 와 전기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았다.

난방연료는 부업유형에 따라 .001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재래형 부업에서는 장작 나무, 절충형 부업에서는 연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 식생활양식 특성과 부업유형과의 교차분석

식생활양식 특성	부업 유형		재래형		절충형		계	X ²	C ²
	f	%	f	%	f	%			
식사장소 농한기 농번기	① 부업	0	0.0	1	4.5	1	1.7	0.08 ^{N.S}	
	② 안방	38	100.0	21	95.5	59	98.3		
	계	38	63.3	22	36.7	60	100.0		
식사장소 아침	① 부업	1	2.6	1	4.5	2	3.3	4.83 ^{N.S}	
	② 안방	33	86.9	15	68.2	48	80.0		
	계	38	63.3	22	36.7	60	100.0		
식사장소 점심	① 부업	3	7.9	2	9.2	5	8.3	2.58 ^{N.S}	
	② 안방	7	18.4	3	13.6	10	16.7		
	계	38	63.3	22	36.7	60	100.0		
식사장소 저녁	① 부업	3	7.9	1	4.5	4	6.7	4.84 ^{N.S}	
	② 안방	19	50.0	6	27.3	25	41.7		
	계	38	63.3	22	36.7	60	100.0		
취사 농한기 농번기	① 식탁	1	2.6	0	0.0	1	1.7	0.00 ^{N.S}	
	② 안방	37	97.4	22	100.0	59	98.3		
	계	38	63.3	22	36.7	60	100.0		
취사방법 농한기 농번기	① 식탁	1	2.6	0	0.0	1	1.7	1.83 ^{N.S}	
	② 안방	35	92.2	22	100.0	57	94.9		
	계	38	63.3	22	36.7	60	100.0		
취사방법 점심	① 식탁	1	2.6	0	0.0	1	1.7	6.55 ^{N.S}	
	② 안방	17	44.7	17	77.3	34	56.7		
	계	38	63.3	22	36.7	60	100.0		
취사방법 저녁	① 장작 나무	22(6.2)	57.8	3(-6.2)	13.6	25	41.7	16.02 ^{**}	.46
	② 가스	21(0.1)	5.3	11(-0.1)	4.5	3	5.0		
	계	38	63.3	22	36.7	60	100.0		
취사방법 연탄	① 장작 나무	22(5.5)	58.0	4(-5.5)	18.2	26	43.3	13.13 [*]	.42
	② 가스	11(0.3)	2.6	10(-0.4)	4.5	1	1.7		
	계	38	63.3	22	36.7	60	100.0		
난방연료 농한기 농번기	① 장작 나무	36(6.2)	94.7	11(-6.2)	50	47	78.3	13.9 ^{***}	.46
	② 연탄	2(-6.2)	5.3	11(6.2)	50	13	21.7		
	계	38	63.3	22	36.7	60	100.0		
가족행사의 횟수	① 1-5	29	76.3	13	59.1	42	70	1.97 ^{N.S}	
	② 6-10	8	21.1	8	36.4	16	26.7		
	계	38	63.3	22	36.7	60	100.0		
부업기기 소유수	① 1-5	27	71.1	13	59.1	40	66.7	1.82 ^{N.S}	
	② 6-10	10	26.3	9	40.9	19	31.7		
	계	38	63.3	22	36.7	60	100.0		
냉장고 위치	① 마루	11(1.5)	28.9	4(-1.5)	18.2	15	25.0	10.87 [*]	.39
	② 안방	22(1.7)	58.0	10(-1.7)	45.5	32	53.4		
	계	38	63.3	22	36.7	60	100.0		

* .05 ** .01 *** .001 수준에서 유의적임
N.S = Not Significant
() 관찰빈도에서 기대빈도를 뺀 수치임

냉장고의 위치를 살펴보면 재래형 부엌은 안방과 마루에, 절충형 부엌의 경우는 마루, 안방, 대청을 제외한 기타의 장소에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야지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식사장소와 방법, 취사, 난방연료, 냉장고의 위치, 가족행사의 횟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주었다.

산간지대의 경우 취사연료는 농한기, 농번기 구별없이 부엌형에 따라 사용연료가 동일했는데 평야지대의 경우는 달랐다. 즉, 평야지대에서는 농한기 취사연료로 재래형 부엌은 짚·겨, 절충형 부엌은 장작·나무, 그리고 입식형 부엌은 가스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농번기의 경우 재래형 부엌은 석유를, 절충형 부엌은 장작·나무와 짚·겨를, 입식형 부엌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난방연료는 재래형 부엌에서 짚·겨, 절충형 부엌에서는 장작·나무, 입식형 부엌에서는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았다.

두 지역의 취사, 난방연료의 사용실태를 비교해 볼 때 평야지대의 재래형부엌의 경우 짚·겨를 사용한 반면, 산간지대의 경우는 장작·나무가 주연료였다. 이것은 평야지대는 주로 논농사에 의존하여 그 부산물인 짚·겨를 사용한 반면, 산간지대의 경우는 밭농사가 주이기 때문에 주연료로 장작·나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냉장고의 위치를 살펴볼 때 평야지대의 입식형 부엌에서는 냉장고를 부엌에 놓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었지만, 두지역 모두 재래형과 절충형의 경우는 장소가 협소하다는가, 먼지가 날린다는가, 연탄가스 때문에 주로 마루나 안방에 놓고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주거공간은 거주인의 생활에 적합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주인의 생활조사를 바탕으로 한 주택계획 및 부엌공간의 계획

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산촌 거주인의 생활에 적합한 부엌공간의 계획을 위해 부엌공간의 변화를 파악하고, 부엌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며 나아가 평야지대의 부엌과 비교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엌의 물리적 측면의 변화내용과 그 시기를 살펴보았을 때 두지역 모두 설비 및 시설면의 변경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재료면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활성화 시기는 평야지대의 경우 1977년 이후인 반면, 산간지대의 경우는 1985년 이후였다. 또한 평야지대의 경우 물리적 측면 중 구조적 변경이 가장 적었고 그 변경의 활성화 시기는 1983년 이후로 다른 변경에 비해 다소 늦게 진행되었다. 산간지대의 경우는 구조면의 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변화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산간지대의 부엌은 평야지대와 달리 재래형과 절충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입식형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3) 부엌공간의 변화요인 중 정부시책인 새마을 사업이라는 변화요인은 평야지대의 경우 부엌을 절충형과 입식형으로 변화시키는 데 큰 몫을 한 반면, 산간지대의 경우는 일시적·지역적 영향만 미쳐 절충형으로 변화시키는 데 그쳤다.

4) 부엌공간의 변화요인 중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부엌유형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산간지대의 농가는 여자의 학력 뿐이었고, 평야지대의 경우는 남자의 학력과 가족생활주기였다. 두지역 모두 성별이 다르긴 해도 학력이 높을수록 좀더 나은 부엌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식생활양식 특성 중에서는 산간지대의 경우 취사, 난방연료와 냉장고 위치가, 평야지대에서는 식사장소와 방법, 취사, 난방연료, 냉장고의 위치, 가족행사의 횟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산간지대의 경우 취사연료는 농한기, 농번기 구별없이 (재래형 부엌에서 장작·나무, 절충형 부엌에서 가스와 전기) 동일한 반면, 평야지대에서는 농한기, 농번기에 사용하는 연료가 달랐

다.

또한 난방연료에서도 두 지역 모두 부엌형에 따라 사용하는 연료가 다르게 나타났다. 두 지역에서 사용하는 연료를 보면 평야지대의 재래형 부엌에서는 짚·겨를 절충형 부엌의 경우에는 장작·나무를 사용한 반면, 산간지대의 재래형 부엌에서는 장작·나무, 절충형의 경우에는 연탄이 주연료로 사용되고 있었다.

냉장고의 위치는 평야지대의 경우 입식형 부엌에서는 부엌에 놓고 사용하고 있었지만 두 지역 모두 재래형과 절충형의 부엌에서는 장소의 협소, 먼지나 연탄가스로 인해 주로 마루나 안방에 놓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산간지대의 부엌이 평야지대에 비해 조사시점이 3년 후 입에도 불구하고 부엌공간의 물리적 측면의 변화내용과 시기를 살펴볼 때, 평야지대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부엌공간이 점차 입식화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나 산간지대는 절충형에 머무르고 있었다. 따라서 평야지대의 부엌과 비교해 보면 부엌의 물리적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엌공간의 변화요인 중 새마을 사업은 평야지대의 경우 부엌공간 변화에 큰 역할을 했으나 산간지대의 경우는 일시적·지역적인 영향만 미쳤을 뿐이다. 따라서 농가의 빈약한 경제상태와 보수적 의식구조를 감안하여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주택개량 및 부엌개량의 추진이 계속 필요하나, 평야지대에만 편중하지 말고 산촌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이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본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지역이 전북지역의 산간, 평야지대로만 한정되었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 농가에까지 확대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2) 부엌공간의 변화 양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지역을 선정하여 시계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1. 강 영환.(1987). 한국 농촌주거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도시화 과정에 따른 주거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3, 6, 45-56.
2. 김 경동, 이 은숙.(1988). 「사회조사 연구방법」, 서울 : 박영사, 508-565.
3. 김 성우, 윤 정숙.(1988). 「서울근교 농촌주택 실태조사 보고서」,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건축공학과.
4. 김 성우, 윤 정숙.(1989). 「서울근교 농촌주택 실태조사 보고서」, 연세대학교 주생활학과, 건축공학과.
5. 박 경란.(1989). 농촌주택과 마을에서의 생활의 변화에 관한 사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박 경옥.(1987). 농촌개량주택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1):생활공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3, 3, 115-123.
7. 박 성준.(1988). 농촌건축의 공간구성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유 옥순.(1988). 한국 농가주택의 부엌공간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 이 동락.(1987). 농촌주택 실내 생활공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이 원.(1987). 농촌주택의 주공간과 주생활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이 은경.(1989). 도시화되는 농촌지역 주택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장 덕찬.(1989). 서울 근교 농촌주택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3. 전북일보사.(1991). 「전북연감」, 전주 : 전북일보사, 429-565.
14. 정 문영.(1992). 농촌주택의 부엌과 목욕실

- 사용 실태와 개량방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지 순외 5인. (1990). 「농촌주택의 개선 및 표준화에 관한 연구(1)」 서울:주식회사 한샘·연세대학교 생활과학 연구소.
16. 최 병숙. (1988). 서울 근교 농촌주택에 있어서 식사 및 취사공간에 관한 사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최 찬환. (1986). 한국의 농촌과 도시 주거양식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8. 한 필원. (1987). 농촌지역 농가주택의 이용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